

생명공학, 미래업종으로 뜬다!

스카우트, 20-30대 젊은층에 인기 ... 화학·환경업종 골찌

20-30대 젊은 층은 미래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생명공학을 꼽고 있으며 출판은 사양업종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취업전문기업 스카우트와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이 20-30대 대학생과 직장인 1706명을 대상으로 <업종별 전망>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, 미래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생명공학을 꼽은 응답자(29.7%) 가장 많았다고 4월14일 발표했다.

다음은 인터넷(10.7%), 전기전자(9.3%), 게임(7.7%), 컴퓨터(5.8%), 오락(4.2%), 건설(3.5%), 제약(2.7%), 금융(2.5%), 의료(2.2%), 화학(1.5%), 환경(0.9%) 순이었다.

사양업종은 출판을 꼽은 응답자가 28.3%로 가장 많았고 건설이 17.2%로 뒤를 이었다.

그밖에 섬유(9.7%), 기계(6.4%), 부동산(5.8%), 사무기기(5.6%), 숙박(3.9%), 교육(2.6%), 유통(2.2%), 철도(1.9%)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.

한편, 스카우트가 직장인 954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의 업종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, 49.5%가 <현 상황을 유지할 것>이라고 답했고 <상승할 것>이라는 응답은 28.2%, <하향세를 보일 것>이라는 응답은 22.3%를 차지했다.

<화학저널 2005/04/15>